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생각하지 않는 죄

송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여사, 손녀 등과 함께 육사 생도들을 사열하면서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이 지난 9일 SNS 트위터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월 8일 육군사관학교 발전기금 200억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생도들이 열병 도중 '우로 봐!'라는 구호에 맞춰 경례할 때 거수경례로 답했다.

육사의 설명에 의하면 전 전 대통령은 1000만 원~5000만 원 출연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초청됐다고 한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누군가? 쿠데타와 518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책임을 물어 '내란 수괴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 받았던 사람이다.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장교를 교육시키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젊은 생도들이 충성을 외치며 바라본 사람이 바로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의 주역이었다. 말이 되는가.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 나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저 자리에 서서 후배들의 자랑스런 선배가 되자. 쿠데타면 어떤가. 일단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는가."

검찰은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로 사용될 서울 서초구 내곡동 터 불법 매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고발한 이 대통령 등 피고발인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 시사주간지의 폭로로 촉발된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이 이 대통령의 사과를 포함, 240여 일간의 숱한 논란만을 남긴 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다만 청와대가 땅을 구입한 뒤 부담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며 대통령 장남인 이시형씨가 이득을 보도록 행정을 처리한 청와대 직원에게 잘못을 묻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와 대통령실의 지분 비율과 매매대금 간 불균형에 대한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해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에 참고토록 조치했다.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더니.

2012년 6월 대한민국의 육군의 정신을 대표하는 육군사관학교는 쿠데타의 주역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 대통령에게 최대한 예의를 표했으며,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었던 대한민국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의 심기를 조금도 거스르지 않는 충견이 됐다. 권력에 대한 맹목적 충성 경쟁이 가관이다.

유대인 학살의 책임을 묻는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예루살렘 재판 과정을 지켜 본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악마가 아니라 지극히 온순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데 놀랐다. "그는 사악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을 증오하지도 않았다. 단지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에서 관료적 의무를 기계적으로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었다."

아이히만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반성적 사유의 결여' 때문에 '냉철한 톱니바퀴 기술자'가 되어 유대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학살했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법정의 검사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은 것이 아이히만의 죄"라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12년 6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에 강창희 의원이 선출될 것이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전 위원장의 멘토단으로 알려진 '7인회' 멤버 중 한 사람으로 하나회출신이다. 5선 의원인 강창희 의원은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 '열정의 시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치생활의 멘토'라고 말했다.

연희동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29만원 할아버지"라는 글을 썼다. "29만원 할아버지! 얼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세요. 물론 그런다고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이 되살아나지는 않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대답해보세요! 29만원 할아버지!"

〈전북대 교수·전 콜롬비아 대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광주도시철 2호선 재원 확보가 급선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건설사업 로드맵이 확정됐다. 하지만,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 등 과제도 많아 공사를 제때에 마무리 짓기 위해선 예산확보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저심도경전철 방식인 2호선은 총 연장 41.7㎞로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조선대-광주역-전남대-일곡-첨단-수완-운남-시청 구간이다. 총 사업비 1조7394억 원을 들여 올해 말 기본설계 용역을 필두로 오는 2016년 본 공사에 착수, 2023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2호선을 통해 광주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선진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로써 막대한 재원 확보와 운영적자 부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비 가운데 국비 60%, 시비가 40%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7000억 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1호선에서 보듯 매년 수백억 원의 운영적자도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시는 현재 기본·실시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26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국비예산 192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시는 저심도방식의 2호선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만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화전당사업이 국비 '찔끔' 지원으로 완공이 늦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국비 확보에 최우선을 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선(支線)이 정식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오는 2016년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지만, 현 상황에서 볼 때 2023년 완공 시점에 지선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는 2호선이 시민 편의와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건설하되, 재원확보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운영적자 보전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상보육 중단 위기 정부가 책임 안아야

영·유아(0~2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 6개월도 안돼 중단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무상보육료 사업비의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는 등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돌입한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무상보육비 82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부담분으로 176억 원의 국비가 마련됐으나 시비 117억 원을 책정하지 않은 것이다. 전남도 역시 지방비 77억 원과 일선 시·군 144억 원 등 221억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추경에서 배제했다.

따라서 광주지역 각 자치구는 9~10월 중 보육료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전남은 22개 시·군 중 7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육사업이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전국적으로도 하반기에 대부분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해 '보육대란'이 불가피해졌다.

무상보육 위기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보육비를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표를 얻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둔 게 화근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상보육비의 40~60%를 떠넘기는 우를 범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상황에 매년 급증하는 복지비를 감당하기란 역부족이다.

결국 무상보육이 시작된 지 반년도 안돼 중단 위기를 맞은 데는 정치권과 정부에 절대적 책임이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보육료 재원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는 하나 무상보육이 복지정책이라는 점과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본다. 지자체가 흔들리면 정부도 온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의료 칼럼

이명이 잘 낫지 않는 병이라고?

허준

귀안에서 또는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이명'은 전체 인구의 약 90%에서 경험하며, 약 30%가 지속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발생률이 높으나 최근에는 소음, 스트레스, 이어폰 사용증가로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평균 약10%씩 이명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명의 형태는 "삐-"하는소리, "윙-" 하는소리, 귀뚜라미 소리, 매미소리, 종소리 등이 있다. 대부분 잠들기 전 조용할 때 이명을 처음 감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잘 없어지지 않으며, 또 신경을 쓸수록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명은 난청이나 어지러움이 생기는 초기신호일 수 있고 대개 귀가 멍멍한 증상, 귀통증, 두통, 전신권태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명은 귀로부터 소리를 전달받아 이를 중계하는 특정 뇌 부위 신경세포들의 '과잉활동' 때문이다. 즉, 우리 몸은 소리가 들리면 귀에서 소리신호를 뇌로 보내고 뇌에서 소리로 인식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귀와 뇌를 연결해주는 기관의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겨 과잉활동을 보이게 되면, 실제로는 소리가 없는데도 소리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소음, 노화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교통사고나 머리외상, 약물남용, 메니에르 병, 뇌종양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갑상선 질환, 귀지, 중이염 등이 있다. 이명은 이처럼 분명한 신체적 이상에 의한 질환이며 결코 환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환자의 대부분이 "나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생겼다", "나는 귀머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불치의 뇌종양이 생겼다", "이명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와 같은 이명에 대한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명을 더욱 심하게 만들고, 만성화 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커피, 콜라, 담배, 음주 등을 삼가야 하며, 식사 때 염분섭취를 줄여야 한다. 또 정기검진을 통해 고혈압이 있으면 조절해야 하고, 적당한 휴식은 필수다. 혈액순환을 돕도록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스트레스를 피하고, 검사 결과 이명의 위험한 원인이 없다고 판명이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적절한 음식은 이명 해소에 좋다. 은행잎 추출물이나 마늘, 비타민B가 들어있는 나물, 호두나 땅콩 같은 견과류가 귀와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음식을 섭취가 번거러울 경우는 은행잎 추출물 제제, 비타민B와 아연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이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음환경, 과도한 피로, 스트레스, 과음, 흡연 등을 피하고 이명을 느꼈을 때에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치료효과가 좋고, 또한 치료가 늦었다고 방치하면 더욱 악화되어 평생지속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약물치료를 포함해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개발돼 많은 호전을 보이고 있으므로, 잘 낫지 않은 병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허준이비인후과 원장〉

기 고

다문화는 축복이다

김광태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2만 2265건으로 신혼부부 네 쌍 가운데 한 쌍은 국제결혼인 셈이다. 종래에는 프랑스가 저출산의 대명사로 불려왔지만 10년 후면 우리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다문화는 이제 소수의 문화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문화를 생각해 본다.

그간 단일민족국가를 표방해 오던 우리나라도 개방화, 국제교류의 확대, 결혼이민, 외국 노동력 유입 등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깊숙이 진입하였다. 길거리 등 어디를 가든 마치 이웃처럼 흔히 마주치는 게 외국인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순혈주의나 혈통적 민족주의는 우리 사회의 정신을 관통하는 중심 줄기여서, 다른 민족과 인종은 사회의 순수성을 오염시킨다거나 민족정기와 생명력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불안함과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다문화 상황은 일종의 축복이다. 다문화 사회는 우리의 한정 되고 제한된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다양한 창조적 역량을 풍부하게 한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이뤄지는 국가의 전형은 고대 로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로마는 전쟁포로나 노예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 특별한 공을 세운 경우라면 시민 자격을 부여했으며, 황제도 특정 가계에 국한시키지 않아 이민족 출신이라도 왕위에 오를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로마가 대제국의 지위를 점하게 된 문화적 힘의 근간이 되었다. 이에 반해 그리스의 종족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는 전통을 견고하게 다지고 이웃과의 잦은 전쟁 속에서 숱한 전설적인 영웅을 만들어 냈지만, 스스로 배타주의에 갇혔던 그들은 결코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로마를 모델로 하는 미국이 애국자(Patriot)라는 말은 쓰면서도 민족주의자(nationalist)라는 용어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적을 초월한 인구이동이 이뤄지면서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바뀔 것이다.

반면 정보화, 지역화 현상 등으로 인해 자국민과 타국민의 문화적 차이와 집단의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분규도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심의 부족으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 지금 외국 이주민들이 서있다. 여기에 다문화 교육은 개인들이 자신의 나라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접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즉 인류의 보편적 문화가치를 추구하고 세계 가치와 문화적 다원성을 강조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이제 우리도 '차이'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자. 세상은 서로 다른 7음계와 7가지 색이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답다.

따라서 우리도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편협한 인종과 민족주의적 편견에서 벗어나 문화 다양성을 키워나가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無 等 鼓

여행 방법 고민

올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야 하나? 조금은 이른 고민이지만 유럽발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국내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7~8월 성수기 비싼 휴가비용을 감당해야만 한다.

올해는 좀 색다른 여행을 할 수 없을까? 매년 생각해보지만 딱히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 파리에 가면 모두가 에펠탑과 개선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센강의 보트를 탄 뒤 샹젤리제 거리에서 쇼핑을 하는 여행은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하얏트호텔에서 자고, 허츠 같은 렌터카를 빌려 베르사유 성을 구경 다니며, 프랑스 요리를 먹고 돌아오는 여행은 조금은 더 진보해 보이지만 여행사 투어에서 하루 정도 주는 자유시간에 잠깐 누리는 호사일 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다른 여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소위 '마이리얼트립(www.myrealtrip.com)'이란 서비스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작한 서비스인데, 일단 이번 여름에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 대학생이 대상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과 함께 스쿠터를 타고 둘러보는 파리 건축여행, 독일에서 와인경영학을 전공하는 유학생과 함께 벌이는 라인 강 와인투어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여행 서비스는 어디든 가능하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한국요리를 가르쳐주는 여행상품, 광주지역을 돌며 '광주사람'이 즐기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여행 등에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마이리얼트립'에서는 이처럼 개인의 경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여행 상품을 만날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재학생이 직접 학교 생활 가이드로 나서고, 홍익대 인근 라이브클럽 투어를 안내해주는 이는 이 지역을 잘 아는 홍익대학교 학생들이다.

올 여름에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진짜 여행을 경험할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메신저 피싱' 피해 빈발…정보 유출 신경써야

보이스 피싱이 온 나라의 어수룩한 청소년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돈을 털어 가더니 이제는 메신저 피싱 피해까지 활개치면서 그 피해가 좀체 줄어들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다.

그중에서도 컴퓨터 메신저를 이용해서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는 메신저 피싱이 문제인 듯 하다.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경찰과 금융당국이 워낙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니까 이제는 메신저 피싱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다.

보이스 피싱은 다 아는 것처럼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메신저 피싱은 지인으로 가장해 속이는 수법이다.

피해자의 순간적인 방심을 노리는 것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이나 지인의 아이디가 사기에 이용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부가 친구들과 컴퓨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 친구의 아이디를 도용한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해 피해를 당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돈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평소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던 친구라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피해는 순간적인 방심에 따라 꼼짝없이 당하고야 마는 일이다.

이는 피해자가 메신저에 등록된 지인들을 쉽게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법이 점점 지능적으로 변모하는 메신저 피싱에 맞서는 최선책은 예방밖에 없다.

우선 메신저를 통해 지인이 계좌 이체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범죄를 예방하려면 자기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한선희·목포시 눌도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